

예술초

전북 고창군 2024

어울림

결과자료집

예술로

전북 고창군 2024

어울림

Contents

1

들어가며

- 사업소개
- 서문
- 현황지도

2

프로그램별 소개

 동촌마을 주민 산책 매뉴얼 

독곡마을 치유요리책 <살면서 힘이 된 요리들> 

마음을 쟁기는 그림책, 몸을 쟁기는 움직임 

오감으로 만나는 갯벌 

 마음의 숲, 드나들다 

혜진의 상자 <뜨는 마음> 

 다함께 두드림(다문화 + 드림 + 어울림) 

 환경 요정의 예술놀이 

 시니어스의 화려한 외출 <7가지 보물을 찾아서> 

3

돌아보며

사업결과 · 참여강사의 이야기 · 사업홍보물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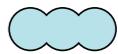
들어가며

- 사업소개
- 서문
- 현황지도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림



들어가며



전북 고창군 결과 자료집

이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여 진행한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결과자료집입니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고창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불균형 해소로 지역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떠나지 않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살아보고 싶은 지역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활동했습니다.

올 한해 함께 활동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재) 고창문화관광재단 -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림은?

「2024 예술로 어울림」은 문화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를 높이고 수도권과의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 우기기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사업입니다.

고창군의 농촌, 어촌, 갯벌, 습지 문화소외마을 대상 사업과 어린이, 청소년, 육아하는 주민, 다문화, 귀촌시니어 등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문화소외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목표

- 마을문제해결과 예술체험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게 예술 참여와 향유의 기회 제공.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고창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활력 제고.
- 고창 지역의 유네스코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정체성 강화와 자긍심 향상 기여.
-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지역 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도모.
- 고창 유네스코 생태문화자원과 농산어촌 문화취약 계층을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수용력 강화.

추진개요

사업명 | 2024 예술로 어울림 - 문화취약형 (전북 고창군)

사업기간 | 2024. 6. ~ 12.

운영기관 |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사업비 | 100,000,000원

사업내용 | 인구감소 지역민 대상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일원

지원대상 | 고창군 내 지역주민 등

주요사업내용

문화소외마을(어촌)

동촌마을
(주민 산책 매뉴얼)

문화소외마을(습지)

독곡마을 치유요리책
(살면서 힘이 된 요리를)

문화소외마을(농촌)

마음의 창가는 그림책,
몸을 창가는 움직임

문화소외마을(갯벌)

오감으로
만나는 갯벌

문화세대공감

마음의 숲,
드나들다

문화연결

한마음의 상자
(뜨는 마음)

문화다양성

다문화+드림+어울림
(다문화 + 드림 + 어울림)

SDGs

환경 요정의
예술놀이

SDGs

시니어스의 화려한 외출
(각자의 보물을 찾아서)

결과공유회

고창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만들기 < $\frac{1}{3}$ 가는 길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고창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 moleact@gmail.com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다. 고인돌 유적(세계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인류무형문화유산), 고창 갯벌(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하여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¹⁾이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고창 선운산과 병바위, 갯벌 등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선정됐고, 동학농민혁명 무장 포고문 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 여러 차원에서 고창의 중요한 특성이다 정체성이 되었다.

고창 어디서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이라는 말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창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창 역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높지만,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한 채 지역 발전이나 관광을 위한 홍보 문구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소수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를 위한 타이틀에 불과했다. 우리는 새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언제나 흥분하지만, 이미 존재하는(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보전과 관리, 나아가 주민의 삶과 연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지역 밖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동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자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 세계적이고 훌륭한 세계유산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실질적인 가치와 가능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홍보와 관광을 위한 타이틀이 아닌 "생활 속의 존재이다 가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이번 '2024 예술로 어울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을 준비하게 된 시작점이다. "우리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이고 훌륭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은 주말이 되면 고창에 머물지 않고 주변 대도시를 찾아가는 것일까?",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외부 관광객 유입이나 도시 경쟁력을 위한 홍보를

1)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연안·해양 생태계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지정되며,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지역을 포함한다.

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환경으로 연결할 수는 없을까?", "기후위기, 고령사회, 지역소멸 등 재난과 위기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해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다른 고창의 대안과 미래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고창의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은 핵심 키워드로 "기후위기, 유네스코 생태환경,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연결과 협력"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현대 사회에서 일반화된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계관에 대한 성찰적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은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통해 시작되었다.²⁾ 당시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에서 시작된 유네스코와 세계 시민들의 협력은 단순히 세계유산 보호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서구 근대 문명의 산업화와 개발주의에 대한 반성을 의미했다. 지구 곳곳의 마을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파괴되었던 자연유산, 문화유산은 바로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과 환경' 유엔 회의가 개최되었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것이다.³⁾ 스톡홀름 선언의 경고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 기후재난, 생물 종 다양성 파괴, 지역소멸 등 명백한 현실이 되었다. 다시 말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재)접속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삶·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문화적 실천이다.

2) 1950년대 이집트는 전력 사정 개선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하기 위해 나일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로 인해 이집트 아스완 지역은 물론 이웃한 나라인 수단의 누비아 계곡에 남아있던 고대 누비아 유적은 물에 잠길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년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유네스코는 곧바로 세계적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전개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map.unesco.or.kr>)

3) 당시 '스톡홀름선언'의 1항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가속화되면서 이 지구에서 인류의 길고 험난했던 진보는 인간이 무수한 수단과 전례 없는 규모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양 측면은 인간의 안녕과 기본권의 향유, 생존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자체로 생태문화적 장소성, 정치성, 역사성 등을 간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단순한 개체로서 물리적 보전 가치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적인 정치성과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존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창의 경우 지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다.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전에 고창의 삶이 형성되고 연결되고 축적된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결과물이자 결정체다. 그것은 과거의 단절되고 대상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창이라는 지역(장소성) 내에서 상호 작용하며 공존하고 있는 사회적 특성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고창이라는 지역 · 도시 전체가 상호 연결된 인간과 비인간(자연, 동물, 기술 등) 사이의 관계망이자 생태계라는 인식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고창이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 자체를 다양성과 관계성을 존중하고 생태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동시대 지구-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오늘날 인간 중심의 성장주의 · 개발주의가 낳은 기후 재난, 고령사회, 사회적 불평등, 지역소멸 등에 대한 성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장소성, 역사성이 가진 힘은 현대 사회와 도시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과밀화된 도시 내 교육 공간에서 빠르게 작동되는 입시와 경쟁, 선택과 배제 중심의 기존 교육과는 달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생태문화의 다양성, 공존과 지속가능성, 연결과 상호협력의 과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다른 시공간으로 교육을 초대한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표면적이고 대상화된 물질성을 교육의 도구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곳(그것)에 내재된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통감각으로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방법론과 모델링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창의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은 고창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고창문화예술교육의 정치성 모색,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링 그리고 고창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을 시도했다.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펼쳐져 있는 농산어촌 마을, 것벌, 습지 등을 거점으로, 문화다양성 · 지속가능성 · 회복탄력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시각예술, 음악, 그림책, 놀이, 요리,

명상 등 다양한 장르와 방법론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창 지역의 유네스코 생태문화환경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가치 · 방법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환경 형성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주민, 문화예술인 등이 상호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앞으로 고창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의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도심권과 농산어촌 마을 사이의 문화격차, 농산어촌 지역 내의 공동체 해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이번 사업이 취지와 기대만큼 수월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고창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라고 호명하기에는 아직 구성원들의 관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부족하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축적하기에는 거점 공간이나 협력 체계 역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생태계를 축적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번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을 통해 그 전환점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다. 고창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고창형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글쓴이 : 이원재

전북 고창과 서울 성북에서 문화연구, 로컬기획, 사회운동 등을 연결하며 서식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및 문화창조대학원 초빙교수,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광주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문화재단 이사, 영등포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림 고창군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생명력이 가득한 산과 바다, 땅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농립어업도시**”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고 또한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에 빛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자랑하는 생태문화도시**”입니다.



동촌마을 주민 산책 매뉴얼

9월 6일(금) ~ 11월 22일(금)

- 회차, 시수 : 총 15회차, 총 45시간
- 참여대상 : 노인, 지역주민
- 장소 : 상하면 동촌마을회관(어촌)

마음을 챙기는 그림책, 몸을 챙기는 움직임

8월 21일(수) ~ 10월 16일(수)

- 회차, 시수 : 총 6회차, 총 18시간
- 참여대상 : 노인, 지역주민
- 장소 : 부안면 겸곡마을회관(농촌)

마음의 숲, 드나들다

8월 29일(목) ~ 10월 24일(목)

- 회차, 시수 : 총 5회차, 총 15시간
- 참여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생활인구
- 장소 : 신재효 판소리공원 체험실

다함께 두드림 (다문화+드림+어울림)

10월 24일(목) ~ 11월 16일(토)

- 회차, 시수 : 총 5회차, 총 15시간
- 참여대상 : 다문화가정 청소년
- 장소 : 고창군 가족센터 강당

시니어스의 화려한 외출 <7가지의 보물을 찾아서>

9월 23일(월) ~ 10월 21일(월)

- 회차, 시수 : 총 5회차, 총 15시간
- 참여대상 : 귀촌 시니어
- 장소 : 석정시니어스타워 대강당

독곡마을 치유요리책 <살면서 힘이 된 요리들>

8월 1일(목) ~ 9월 26일(목)

- 회차, 시수 : 총 15회차, 총 45시간
- 참여대상 : 노인, 지역주민
- 장소 : 아산면 독곡마을회관(습지)

오감으로 만나는 갯벌

8월 8일(목) ~ 8월 24일(토)

- 회차, 시수 : 총 6회차, 총 18시간
- 참여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생활인구
- 장소 : 심원면 하전갯벌체험장(갯벌)

혜진의 상자 <뜨는 마음>

10월 10일(목) ~ 11월 07일(목)

- 회차, 시수 : 총 5회차, 총 15시간
- 참여대상 : 육아하는 지역주민
- 장소 : 온미디어아트센터

환경 요정의 예술놀이

8월 21일(수) ~ 10월 2일(수)

- 회차, 시수 : 총 6회차, 총 18시간
- 참여대상 : 초등학생
- 장소 : 고창청소년 문화센터 외 2개소

함께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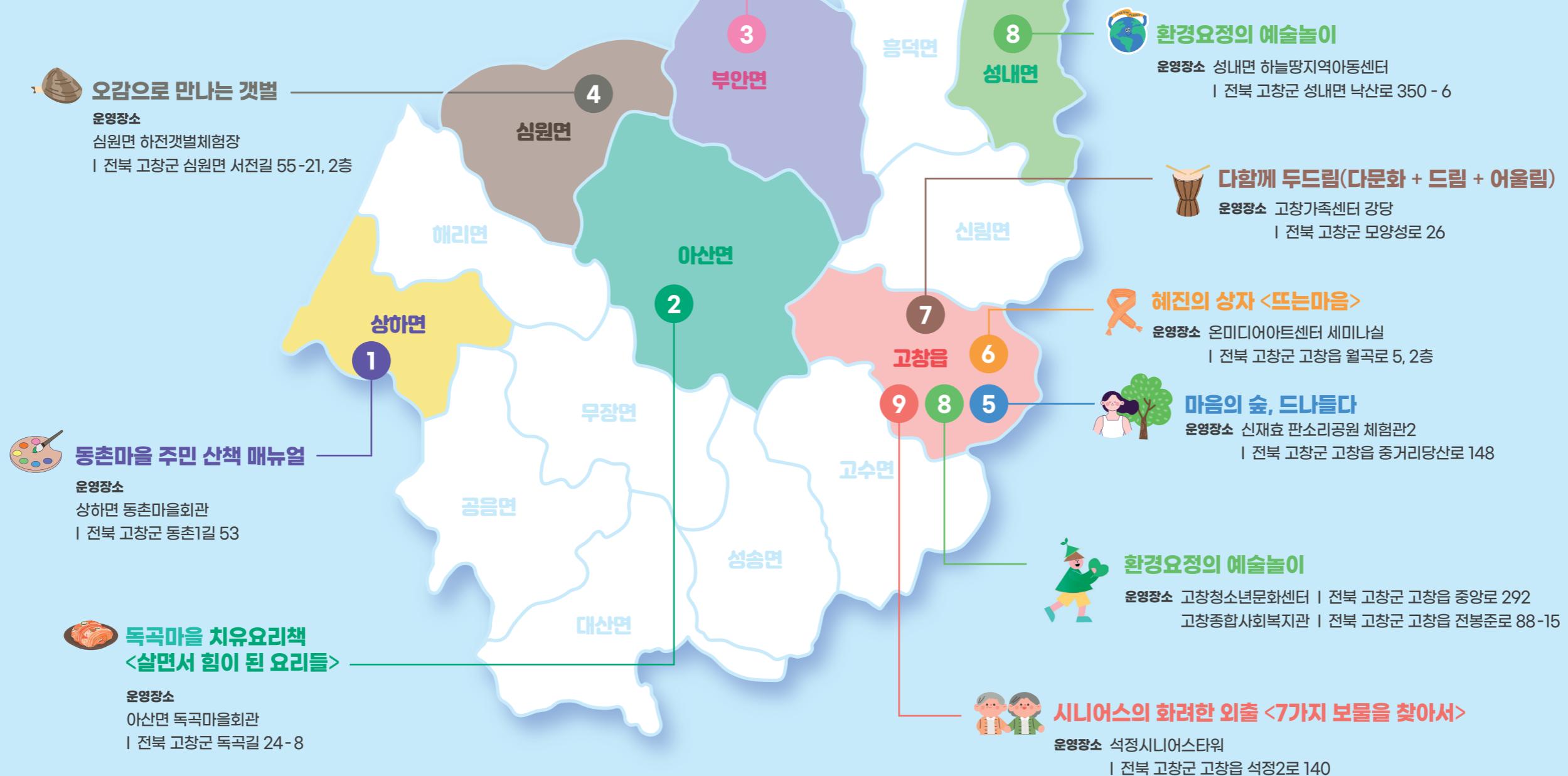
12월 12일(목)

- 회차, 시수 : 총 1회차, 총 5시간
- 참여대상 : 프로그램 참여자(강사, 주민 등)
- 장소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현황지도 |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림

고창군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2

프로그램별 소개

1. 동촌마을 주민 산책 매뉴얼 22 p
2. 독곡마을 치유요리책 <살면서 힘이 된 요리들> 26 p
3. 마음을 챙기는 그림책, 몸을 챙기는 움직임 30 p
4. 오감으로 만나는 갯벌 32 p
5. 마음의 숲, 드나들다 34 p
6. 혜진의 상자 <뜨는 마음> 36 p
7. 다함께 두드림 (다문화 + 드림 + 어울림) 38 p
8. 환경 요정의 예술놀이 40 p
9. 시니어스의 화려한 외출 <7가지 보물을 찾아서> 42 p

1 동촌마을 주민 산책매뉴얼



교육일정

2024. 09. 06(금) ~ 2024. 11. 22(금)

프로그램 유형 | 정규

장르 및 분야 | 미술(그림), 무용(체조)

회차 및 시수 | 총 15회차 / 45시수

활동 장소 | 동촌마을회관

참여 대상 | 노인, 지역주민(총 15명)

활동 강사 | 박성완, 강미미, 강공지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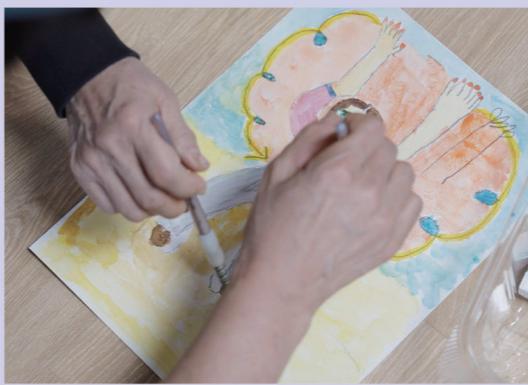
동촌마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무용(체조)를 통한 소통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9.6(금) 13:00 ~ 16:00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 안내 프로그램 계획 공유 및 네트워킹
2	9.13(금) 13:00 ~ 16:00	마을 이야기 나누기 1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 배우기 “개별 그림” 그리기
3	9.20(금) 13:00 ~ 16:00	마을 이야기 나누기 2	몸으로 표현하는 스트레칭 “공동 그림” 그리기
4	9.24(화) 13:00 ~ 16:00	마을 이야기 나누기 3	몸으로 표현하는 스트레칭 “공동 그림” 그리기
5	9.29(일) 13:00 ~ 16:00	마을 이야기 나누기 4	몸으로 표현하는 스트레칭 “개별 그림” 그리기
6	10.1(화) 13:00 ~ 16:00	마을 이야기 나누기 5	몸으로 표현하는 스트레칭 “개별 그림” 그리기
7	10.4(금) 13:00 ~ 16:00	마을 이야기 나누기 6	몸으로 표현하는 스트레칭 “개별 그림” 그리기
8	10.8(화) 13:00 ~ 16:00	움직임 활동 1	음악과 몸으로 표현하기 “몸 움직임” 그리기
9	11.1(금) 13:00 ~ 16:00	움직임 활동 2	음악과 몸으로 표현하기 “개별 그림” 그리기
10	11.5(화) 13:00 ~ 16:00	움직임 활동 3	음악과 몸으로 표현하기 “몸 움직임” 그리기
11	11.8(금) 13:00 ~ 16:00	움직임 활동 4	나이 몸의 변화 살펴보기 “일상 속 나의 움직임” 그리기
12	11.12(화) 13:00 ~ 16:00	움직임 활동 5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이기 “정물과 움직임” 그리기
13	11.15(금) 13:00 ~ 16:00	활동 돌아보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소통하기
14	11.19(화) 13:00 ~ 16:00	활동 자랑하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자랑하기
15	11.22(금) 13:00 ~ 16:00	프로그램 마무리	결과물 공유하기, 감사인사 나누기



2 독곡마을 치유요리책 살면서 힘이 된 요리들



▣ 교육일정

2024. 08. 01(목) ~ 2024. 09. 26(목)

프로그램 유형 정규	장르 및 분야 미술(그림), 기타(음식)
회차 및 시수 총 15회차 / 45시수	활동 장소 독곡마을회관
참여 대상 노인, 지역주민 (총 15명)	활동 강사 나오미, 김초은, 이은주, 양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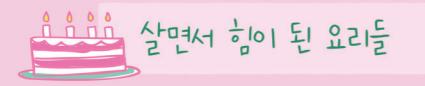
▣ 프로그램 내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담은
요리책을 제작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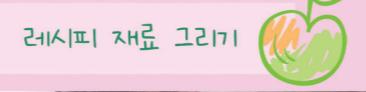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8. 1(목) 13:00 ~ 16:00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 안내 프로그램 계획 공유 및 네트워킹
2	8. 6(화) 13:00 ~ 16:00	요리 이야기 1	살면서 힘이 된 요리 이야기 해보기
3	8. 8(목) 13:00 ~ 16:00	요리 이야기 2	요리에 대한 주제 정리하기
4	8. 13(화) 13:00 ~ 16:00	요리 이야기 3	우리 마을에 있는 식재료 찾아보기 (마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방법 알아보기)
5	8. 15(목) 13:00 ~ 16:00	그림으로 표현하기 1	나의 요리 그리고 채색하기 1
6	8. 20(화) 13:00 ~ 16:00	그림으로 표현하기 2	나의 요리 그리고 채색하기 2
7	8. 22(목) 13:00 ~ 16:00	그림으로 표현하기 3	나의 요리 그리고 채색하기 3
8	8. 27(화) 13:00 ~ 16:00	그림으로 표현하기 4	나의 요리 그리고 채색하기 4
9	8. 29(목) 13:00 ~ 16:00	그림으로 표현하기 5	나의 요리 그리고 채색하기 5
10	9. 3(화) 13:00 ~ 16:00	우리 마을 요리사 1	나도 요리사 1 및 품평회
11	9. 5(목) 13:00 ~ 16:00	우리 마을 요리사 2	나도 요리사 2 및 품평회
12	9. 10(화) 13:00 ~ 16:00	우리 마을 요리사 3	나도 요리사 3 및 품평회
13	9. 12(목) 13:00 ~ 16:00	우리 마을 요리사 4	나도 요리사 4 및 품평회
14	9. 24(화) 13:00 ~ 16:00	정성 한소끔 더하기	나를 행복하게 했던 맛난 음식, 너도 행복하게 해줄거야
15	9. 26(목) 11:00 ~ 14:00	프로그램 마무리	감사인사 나누기 및 소감문 적기



살면서 힘이 된 요리들



레시피 재료 그리기



나의 요리 채색하기



3

마음을 챙기는 그림책, 몸을 챙기는 움직임



교육일정

2024. 08. 21(수) ~ 2024. 10. 16(수)

프로그램 유형 기획	장르 및 분야 미술(그림), 무용(체조)
회차 및 시수 총 6회차 / 18시수	활동 장소 검곡마을회관
참여 대상 노인, 지역주민 (총 15명)	활동 강사 이선주, 심희숙, 김숙영

프로그램 내용

그림책, 향기치료, 생활체조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8. 21(수) 9:00 ~ 12:00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 및 강사소개 그림책 읽기, 필사, 그리기, 아로마테라피와 통증파스만들기
2	8. 28(수) 9:00 ~ 12:00	마음 챙기기 1	그림책 읽기, 필사, 그리기 아로마테라피와 버물리 만들기
3	9. 11(수) 9:00 ~ 12:00	마음 챙기기 2	그림책 읽기, 필사, 그리기 아로마테라피와 주방세제 만들기
4	9. 25(수) 9:00 ~ 12:00	마음 챙기기 3	그림책 읽기, 필사, 그리기 음악과 함께 몸을 챙기는 운동
5	10. 2(수) 9:00 ~ 12:00	마음 챙기기 4	그림책 읽기, 필사, 그리기 아로마테라피와 손마사지하기 음악과 함께 몸을 챙기는 운동
6	10. 16(수) 9:00 ~ 12:00	마음 챙기기 5 마무리	그림책 읽기, 필사, 그리기 아로마테라피와 샴푸바 만들기 음악과 함께 몸을 챙기는 운동



4 오감으로 만나는 갯벌



▣ 교육일정

2024. 08. 08(목) ~ 2024. 08. 24(토)

프로그램 유형 | 기획
회차 및 시수 | 총 6회차 / 18시수
참여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생활인구 (회차별 20명)

장르 및 분야 | 생태교육
활동 장소 | 하전갯벌체험장
활동 강사 | 최선하, 이길은, 이금주

▣ 프로그램 내용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을 주제로 교육과 만들기 체험 및 갯벌 체험을 겸한 생태문화예술교육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8. 8(목) 10:00 ~ 13:00		
2	8. 9(금) 10:00 ~ 13:00		
3	8. 11(일) 9:30 ~ 12:30	교육과 갯벌 체험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만나기	고창갯벌의 이해 PPT 진주조개키링 만들기 체험 고창갯벌 현장체험
4	8. 10(토) 10:00 ~ 13:00		
5	8. 13(화) 14:00 ~ 17:00		
6	8. 24(토) 10:00 ~ 13:00		

※ 물때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 ※



5 마음의 숲, 드나들다



교육일정

2024. 08. 29(목) ~ 2024. 10. 24(목)

프로그램 유형 | 기획

회차 및 시수 | 총 5회차 / 15시수

참여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생활인구 (총 15명)

장르 및 분야 | 음악(명상)

활동 장소 | 신재효 판소리공원 체험실

활동 강사 | 김혜연, 정향숙, 이수명

프로그램 내용

명상을 통한 참여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8. 29(목) 18:00 ~ 21:00	오리엔테이션 및 인사	프로젝트 설명 및 계획안내, 음악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명상의 기초
2	9. 12(목) 18:00 ~ 21:00	나의 마음은?	명상하기 / 마음진단 그러면, 너의 마음은? (1:1)
3	9. 26(목) 18:00 ~ 21:00	위로	명상하기 / 악기탐색 나를 위로해주는 악기찾기 연주해보기
4	10. 17(목) 18:00 ~ 21:00	울림	명상하기, 악기의 진동을 경험하며 변화를 이야기해보기, 마음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해보기
5	10. 24(목) 18:00 ~ 21:00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명상하기, 재미있게 사는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3:1), 무브먼트 / 마무리인사



6 <혜진의 상자> 또는 마음



▣ 교육일정

2024. 10. 10(목) ~ 2024. 11. 07(목)

프로그램 유형 | 기획

회차 및 시수 | 총 5회차 / 15시수

참여 대상 | 육아하는
지역주민 (총 15명)

장르 및 분야 | 공예(뜨개)

활동 장소 | 온미디어아트센터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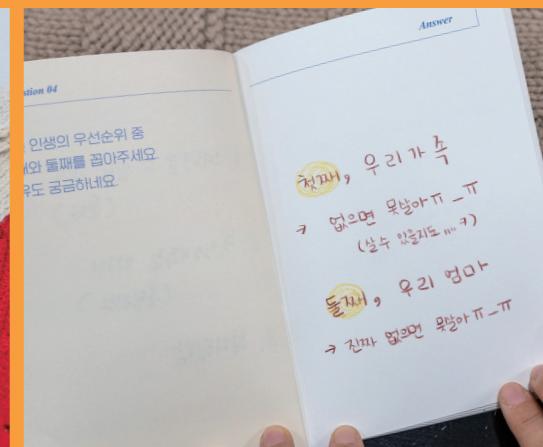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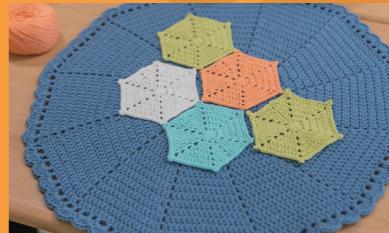
활동 강사 | 송혜진, 이선영

▣ 프로그램 내용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뜨개키트를 활용하여 육아하는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경험과 소통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10. 10 (목) 10:00 ~ 13:00	오리엔테이션 대바늘의 기초	프로젝트 안내, 대바늘의 기초 배우기 및 연습하기, 이야기 나누기
2	10. 17 (목) 10:00 ~ 13:00	대바늘 가방 시작	뜨개키트의 설명서 보면서 대바늘 가방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3	10. 24 (목) 10:00 ~ 13:00	목도리 만들기	대바늘 가방 마무리, 대바늘로 목도리 코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4	10. 31 (목) 10:00 ~ 13:00	다용도매트 만들기	목도리 만들기 마무리, 다용도 매트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5	11. 7 (목) 10:00 ~ 13:00	뜨개키트 마무리 점검 결과공유	가방, 목도리, 다용도매트의 마무리 점검, 결과 공유하기



7

다함께 두드림 (다문화 ♥ 드림 ♥ 어울림)



교육일정

2024. 10. 24(목) ~ 2024. 11. 16(토)

프로그램 유형 | 기획

장르 및 분야 | 음악(난타)

회차 및 시수 | 총 5회차 / 15시수

활동 장소 | 고창군가족센터 강당

참여 대상 | 다문화 청소년 (총 15명)

활동 강사 | 유경수, 김희정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들이 난타 연주를 통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며 즐기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10. 24(목) 15:30 ~ 18:30	오리엔테이션 난타에 대하여	기본타법 배워보기, 2비트 타법, 천동소리 익히기
2	10. 31(목) 15:30 ~ 18:30	음악과 난타로 소통하기	난타로 노래 연주하기 I (페스티벌, 포이즌, 아리랑)
3	11. 7(목) 15:30 ~ 18:30	음악과 난타로 소통하기	난타로 노래 연주하기 II (붐바스틱, 위월락유, 핸드클랩)
4	11. 14(목) 15:30 ~ 18:30	음악과 난타로 소통하기	난타로 노래 연주하기 III (공연곡 연습하기)
5	11. 16(토) 11:30 ~ 14:30	다함께 두드림	고창 세계문화 어울림 축제에서 실력 뽐내기



8 환경요정의 예술놀이



▣ 교육일정

2024. 8. 21(수) ~ 2024. 10. 02(수)

프로그램 유형 | 기획

장르 및 분야 | 융복합(업사이클링)

회차 및 시수 | 총 6회차 / 18시수

활동 장소 | 고창청소년문화센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성내면하늘땅지역아동센터

참여 대상 | 초등학생 (2회차별 15명)

활동 강사 | 김유진, 김초은, 최민희

▣ 프로그램 내용

환경과 예술을 결합한 업사이클링 예술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환경 문제 인지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8. 21(수) 15:00 ~ 18:00	오리엔테이션 나는야 환경요정	인사나누기, 프로그램 일정안내, 탄소중립을 위한 업사이클링, 양말목 티매트 만들기
2	8. 28(수) 15:00 ~ 18:00	우리는 환경요정	네잎클로버, 텁블러가방, 유리병 매듭화병 만들기
3	9. 4(수) 15:00 ~ 18:00	오리엔테이션 나는야 환경요정	인사나누기, 프로그램 일정안내, 탄소중립을 위한 업사이클링, 양말목 티매트 만들기
4	9. 11(수) 15:00 ~ 18:00	우리는 환경요정	네잎클로버, 팔찌, 유리병 매듭화병 만들기
5	9. 25(수) 15:00 ~ 18:00	오리엔테이션 나는야 환경요정	인사나누기, 프로그램 일정안내, 탄소중립을 위한 업사이클링, 양말목 티매트 만들기
6	10. 2(수) 15:00 ~ 18:00	우리는 환경요정	네잎클로버, 팔찌, 유리병 매듭화병 만들기



9

시니어스의 화려한 외출 <7가지의 보물을 찾아서>



교육일정

2024. 9. 23(월) ~ 2024. 10. 21(월)

프로그램 유형 | 기획

장르 및 분야 | 음악(프로듀싱, 연주)

회차 및 시수 | 총 5회차 / 15시수

활동 장소 | 시니어스타워 및
지역내 관광명소

참여 대상 | 귀촌 시니어(총 19명)

활동 강사 | 박선이, 김승호, 김예숙

프로그램 내용

고창으로 귀촌한 시니어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음악으로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회차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회차	교육일시	주제	주 활동내용
1	9. 23(월) 9:00 ~ 12:00	고창 어바웃타임	친해지기 7개의 유네스코 고창의 보물을 정보수집 후 명소 정하기
2	9. 30(월) 9:00 ~ 12:00	시니어스의 화려한 외출	7가지 보물중 2곳 명소 방문하기 명소에서 영감받은 소감 발표하기
3	10. 7(월) 9:00 ~ 12:00	음악, 짓다	개사활 노래(음악)을 정하기 곡 정하고 개사하기 연주 및 연습하기
4	10. 14(월) 9:00 ~ 12:00	음악, 빗다	공동 악기 연주 및 연습하기
5	10. 21(월) 9:00 ~ 12:00	음악, 쓸다	우리들의 연주회



예술로 어울림

3

돌아보며

- 사업결과
- 참여강사의 이야기
- 사업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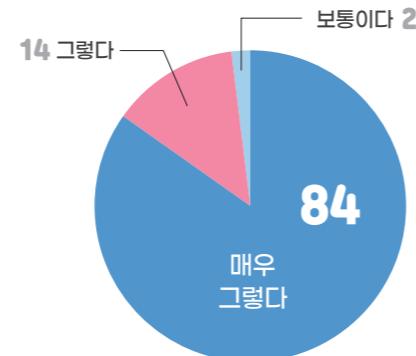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2024 예술로 어울림 참여자
응답인원 총 100명

Q.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Q. 프로그램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에 만족도를 체크해주세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참여 전 가졌던 기대감에 비해 만족감은?

83 15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재참여 의사는?

90 7 3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은?

90 8 2

운영기간 2024. 07 - 2024. 12

참여인원



운영횟수



운영장소

심원면
(겟벌마을)

1개소

부안면
(농촌마을)

1개소

상하면
(어촌마을)

1개소

아산면
(습지마을)

1개소

성내면

1개소

고창읍

6개소



동촌마을 주민 산책 매뉴얼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촌마을 할머니들과는 구면이에요. 고창문화도시 프로그램으로 동촌마을 할머니들을 소개하는 앨범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주민과 이어서 만나는 건 굉장히 귀한 경험이에요. 그려 보니 애정이 생기고 작가로서 할머니들을 관찰하면서 매일 마을회관과 집을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에 예술로서 무언가 개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용 작가, 시각 작가와 함께 실내운동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어요. 회관에 늘 앉아계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실내 운동 안내서 말이죠.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주안점 또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취지와 목적]

할머니들과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무용 작가와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보면서 할머니들의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게 파악이 되어 노인에게 맞는 작은 동작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시각작가와 함께한 할머니들의 그림은 할머니들의 동작을 스스로 표현하기도 했고 거기에 마을의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마을에서 나는 작물, 마을풍경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할머니들의 얼굴을 그렸다면 이번엔 자화상도 같이 그려봤어요. 할머니들의 몸, 할머니들의 그림 이런 흔적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느릿하고 빼울빼울한 터치 그 흔적들은 그냥 나오는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서 깨닫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회와 의미]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본 건 동촌마을이 처음이에요. 낯선 영역이 친근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프로그램 마치고 나오는데 마치 명절 쇠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일년에 한두 번 보는 가족보다 더 친근한 이웃사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말이죠. 작업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림 그리는 대상의 거리감을 좁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각 작가로서 작품이 다른 지점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노인들을 밀도 있게 만나는 이런 경험이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게 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죠. 할머니 중 한 분은 자녀가 지팡이를 사줬는데 쑥쓰러워서 만들고 걷다가 안 걸어지는 지점까지 갖을 때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몇 십년 한동네에서 함께 산 마을사람들 조차도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노인의 신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Q. 처음 계획할 때의 기대와 마무리하고 난 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짚금합니다.

[계획과 결과]

처음에는 할머니들의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마을회관이 아닌 개인의 공간에서 할머니들을 만나고 싶었죠. 공동체 안에서의 할머니들과 할머니 개인들의 차이를 알고 싶었는데 아직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한 분이 긴장할 때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라고 초대받아서 댁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작업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박 성 완 강사님 인터뷰 ❤

Q. 고창의 생태문화와 이번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생태문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태문화와의 관계성]

글쎄요. 솔직히 작업적으로 직접 연결지어서 구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신체가 아닐까 싶어요. 할머니들의 손을 보면 고추농사 짓느라 손이 굽어있거든요. 한편으로 말하면 직업병이죠. 자연의 물질 순환과 인간의 신체 순환은 상호 의존적이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를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Q.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관객성과 피드백]

할머니들은 동작이 안될 때 그림이 안될 때 서로를 보며 많이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어찌면 작가적인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작과 나, 그림과 나. 나를 동일시하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웃는 게 아닐까. 그런 꼭 예술가가 아니라도 모두가 생각하는 지점일까요?(하하) 강사로서는 매 순간 집중해 주시는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동촌마을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대부분 농사를 지으셔서 농번기에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더라고요. 농한기때(1-2월)로 맞추면 좋은데 예산 집행 구조상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바로 일하러 가신다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무용 작가는 호흡과 동작에 맞춘 느린 가벼운 음악을 선곡해 있는데 할머니들은 뽕짝을 좋아하는 시더라고요. 대중적인 음악 선곡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싶었습니다.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니까요.

Q. 향후 고창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창 문화예술교육]

우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가자도 강사도요. 인력풀도 외연이 넓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넓어진다면 그 안에서 고민과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스포츠 영역은 프로, 아마추어,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걸 예술로 빗대어보면 우선 참여 인구가 늘어나야 확장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너무 일부의 영역으로 타겟팅 되어 있지 않나 되짚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 인터뷰어 : 육기(황자원) -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





독곡마을 치유요리책

살면서 힘이 된 요리들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독곡마을에 거주하시는 7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 할머니들 8분과 함께 했어요. 살면서 음식으로 힘이 된 요리들의 레시피와 할머니들의 그림으로 (요리)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창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이전에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할머니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았습니다. '치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전에는 '살면서 힘이 된 음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힘들었던 시절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어요. 할머니들이 가족들을 위해 애쓴 가족애를 더 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종종 신세 한탄으로 받아들이곤 하죠. 감정의 표현을 잘 못 하시기도 하고요. 어릴 적 등교하는 동생에게 청맥죽을 끓여주었는데 그걸 먹고 체하는 바람에 동생을 업고 악방까지 뛰어가다 넘어져 손을 다친 이야기(아직까지 남아있는 흉터), 몸이 아픈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돌미나리즙을 해주었는데 20년을 채웠으면 남편이 괜찮았을까 후회가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 등등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어서 훌가분하다는 할머니들의 진심이 이제라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주안점 또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취지와 목적]

독곡마을 할머니들에게는 그 시절로 돌아가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애씀의 시간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싶었고요, <독곡마을 치유 요리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잊혀진 음식 속에 담긴 그 시대, 여성, 가족,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가공식품 등 먹거리가 많지만 요리책에 나오는 독곡마을 할머니들의 음식 재료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니까 주변에 이런 것들도 음식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요. 넓게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서 깨닫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회와 의미]

독곡마을 할머니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긴 가족, 공동체는 나, 개인보다 우선이었다는 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시절엔 음식을 이웃과 많이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 나눔안에서 일상과 정도 놀 나누었더라고요. 요즘은 음식맛에 대한 평가가 매체를 통해 당연 시 되었지만 그 시절엔 그 나눔 안에서 의견,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할머니들과의 작업은 사실 저도 노년의 삶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고민과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 이야기를 매개로 그들의 개인사를 들으며 많이 친근해졌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애로사항도 실수도 보듬어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조금은 더디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얻었습니다.

Q. 처음 계획할 때의 기대와 마무리하고 난 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짚금합니다.

[계획과 결과]

처음 계획은 이전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레시피의 음식을 주민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 여름 너무 더워서 독곡마을 주민들끼리만 진행한 것이 아쉬워요. 요리책에 나오는 원재료 중 계절성 재료가 있어 구하지 못한 것도 아쉽구요. 놀 마을회관에서 모여 이야기 나누지만 요리를 해서 나누기엔 마을회관이 조금 혐소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다대일로 진행하다 보니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과는 한글 가르침과 함께 일대일로 더 밀착해서 하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어요. 열정은 많으신데 답답해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셨거든요.

나·오·미 강사님 인터뷰♥

Q. 고창의 생태문화와 이번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생태문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태문화와의 관계성]

연관성이 깊죠, 생태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주위 환경이잖아요. <독곡마을 치유요리책>에는 할머니 주위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담겨있어요. 그때는 조미료 없이 원재료를 중심으로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것이 생태 음식이라고 봐요, 그때 어머니들은 그런 생태 음식으로 생태문화를 이뤄갔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 마을이 된 거죠.

Q.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관객성과 피드백]

매 회차 시작 전에 책을 읽어드렸어요. 전국의 할머니들이 만든 책이요. 제주, 부안, 고창의 책도 있었습니다. 제주 4.30 이야기, 동백꽃 이야기,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읽어주니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참 좋아하셨어요. 음식을 매개로 한 각자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옮기고, 그림과 글이 완성되어 발표할 때 특히 좋아하셨답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주고 받았는데 그때 제일 좋아하셨어요. 고령의 할머니들과 작업하다보니 동네를 벗어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책마을 해리, 책이 있는 풍경 등 고창에도 책 전문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다양한 삶의 기록들을 보여주고 함께 체험프로그램도 경험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독곡마을에서만 9년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교육 환경이 있으면 할머니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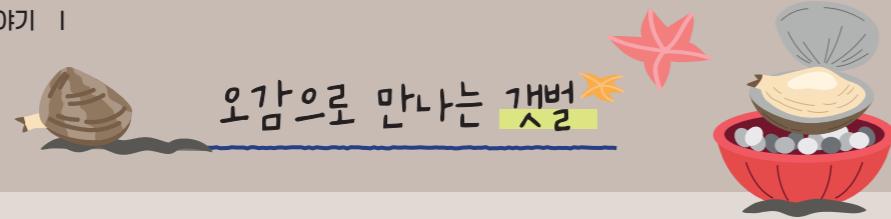
Q. 향후 고창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창 문화예술교육]

할머니(노인)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곡마을 치유요리책>처럼 음식문화에 대한 협력 활동도 좋고요, 마을의 옛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우물이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할머니들에게 듣고 그것을 만화로 엮어낸다면 우물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마을의 옛 이야기들도 사라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물투어-정자투어-작은길투어 등 마을마다의 특징을 연결하여 투어프로그램으로도 구성해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걸 드로잉이나 그림책으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구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할머니들만이 갖고 있는 마을의 옛이야기들을 아카이빙하는 콘텐츠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 인터뷰어 : 육기(황지원) -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감으로 만나는 갯벌>은 고창 갯벌 생태를 교육하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학습으로 공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체험은 양식진주가 들어 있는 키트로 하게 되는데요, 조개 속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조개가 살고 있는 갯벌의 생태로 연결 지어 관점을 확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보다 진주 채취에 대한 몰입도와 완성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후 콘텐츠에 대해 그리고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주안점 또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취지와 목적]

갯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싶었어요. 갯벌은 일반적으로 야생 생물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되며, 다양성의 수준이 특별히 높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개체를 부양하고 있어요. 철새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구요.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을 막고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갯벌이에요. 이곳에서 행복한 체험을 통해 갯벌에 대한 관심이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서 깨닫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회와 의미]

기후 위기가 심각함을 절실히 피부로 느꼈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이 많아 날씨에 특히 민감한데 내년부터 무더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제가 십년 전에 경험한 갯벌과 지금의 갯벌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수온도 빨리 색깔도요. 조개의 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의 짧은 체험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인연을 갖고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상상해 보고 있어요. 마음을 이어가다 보면 갯벌 보전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이 계속 이곳으로 오게 하게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함께 하는 동료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Q. 처음 계획할 때의 기대와 마무리하고 난 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짚금합니다.

[계획과 결과]

갯벌은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서요. 특히 가족 단위가 함께 오면 좋겠더라구요. 그런데 가족이 오려면 방학이어야 하는데 방학 기간인 여름이 너무 더워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하 강사님 인터뷰♥

Q. 고창의 생태문화와 이번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생태문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태문화와의 관계성]

고창의 갯벌은 지역의 삶과 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갯벌의 바닷물이 자영이 되구요, 특히 고창 갯벌에서는 백합이 많이 나는데 어민들은 그걸 팔아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가르치죠. 고창 바지락이 우리나라 생산량의 절반인 거 아세요? 외지에서 바지락 체험도 많이 하려 오시잖아요. 트랙터를 타고 갯벌로 들어가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이런 바닷가주민들의 갯살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체험을 통해 갯벌을 알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어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공감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Q.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관객성과 피드백]

앞서 이야기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체험의 호응도가 높았구요, 트랙터를 타고 갯벌로 들어가 조개를 캐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제공되는 망에 한가득 조개를 캐는 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방학 기간 중 날씨가 너무 더워 시기 조절에 대한 부분을 고민 중이고 그러려면 예술 장르나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움직임이나 시각예술과 연결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다른 분야의 강사들과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험 키트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만들고 나중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자연물로 만들고 자연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요. 최대한 현장에서 즐길 거리로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뭔가 만들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올여름, 청소년 갯벌 레인저스 아이들(지역아동센터와 협업, 램사르고창갯벌센터 모집)과 활동 경험이 있는데요. 폐현수막 위에 갯벌 흙을 갖고 와서 대왕 갯지렁이를 함께 만들었어요.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로 입을 만든다거나 해초나 조개껍데기 등을 활용해서 2미터 넘는 갯지렁이를 아이들과 만들었죠. 끝나고 쓰레기는 갖고 나오고 나머지는 바다로 돌려보낸 좋은 경험이 있었답니다.

Q. 향후 고창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창 문화예술교육]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만 생각하면 제한적이니까 다양한 장르와 협력을 시도해 보는 게 고창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경험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 있는 관련 주제로 모일 때 스터디하는 과정도 꼭 넣고 싶습니다.

♥ 인터뷰어 : 육기(황지원) -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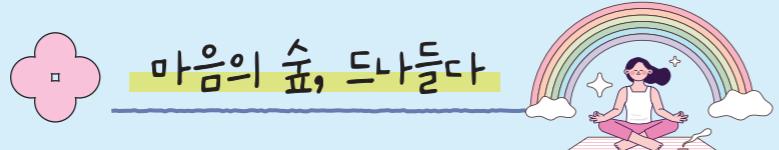


• • •



REVIEW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명상을 통해 나의 모습(마음)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따로 시간과 장소를 내지 않아도 일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방법(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고요하고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고 화가 날 때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주안점 또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취지와 목적]

마음에 주목하고 싶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해서 내 주변 사람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의 방식 중 하나가 명상이라는 것을 제안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명상 프로그램에서는 소리에 중점을 두었어요. 몸에서 나는 소리, 악기 소리,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우리는 소리 안에서 늘 생활하잖아요. 소리 속에서 명상을 하고, 나아가 모든 소리가 명상이 되는,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할까'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서 깨닫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회와 의미]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에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참가하신 분 중에 고창에선 명상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매번 명상 관련 단기프로그램만 진행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후를 계획하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분명있잖아요. 명상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발전되기를 바래요.

Q. 처음 계획할 때의 기대와 마무리하고 난 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과 결과]

가족, 친구, 동료...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과 함께여서 더 좋았습니다. 나와 나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이 모토였어요. 내가 느낀 나에 대한 이야기, 가족이나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소통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오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특히 서로의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답변이 '(쑥쓰러워하며) 별로 할말이 없어요'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스스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은 조금 더 열렸을진 몰라도 나와 너의 만남은 아쉬움이 있어요.

김 혜연 강사님 인터뷰

Q. 고창의 생태문화와 이번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생태문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태문화와의 관계성]

솔직히 생태적 문화에 대한 개념이 어려워요. 사회적 맥락으로 보면 개인이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게 확장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게 생태적이지 않나 싶어요. 생태라고 하면 저는 사슬이 생각나요, 서로가 이어지는.

Q.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관객성과 피드백]

명상은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텐데 이번에 매회 악기와 음악을 변화해 보니 다양한 소리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주 자체도 좋지만 이것 또한 명상이라고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이든 소리든 듣는 것에서 출발하니까요. 마지막 회차에는 다 같이 싱잉볼을 자유롭게 연주해 보았어요. 악기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명상음악이 될 수 있죠. 듣고 좋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소리가 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반갑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는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았죠.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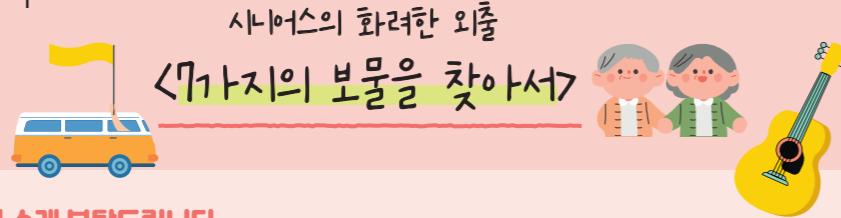
Q. 향후 고창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창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제 역할이 가르친다고만 생각되진 않아요. 저는 이끌어주고 진행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참가자들이 살짝 진행해도 좋겠는데 아직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당해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야겠죠. '문화예술학교'가 고창에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상상을 자주 해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많아야겠죠.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때그때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고창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고창에도 숨은 실력자들이 많을 꺼예요. 모아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어 : 육11(황지원) -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Q.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모인 분들은 모두 고창으로 귀촌하신 분들이었어요. 6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까지 열아홉 분, 모두 여성이었답니다. 고창 석정지구 시니어타운에서 활동했는데요, 이 곳이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났는지 서울, 경기권, 대구 심지어 미국에서도 오셨더라구요. 저는 이분들과 “어른이 음악대”를 상상하며 활동했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시니어들에게 ‘음악’을 매개로 일상을 좀 더 활기차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공감되기를 바랐죠.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귀촌한 노인들이) 감각하는 고창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고 싶었습니다. 총 5회차라 음악을 전반적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어서 대중성 있는 기존 노래에 참가자들과 함께 가사를 지어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7가지나 있는 전국 최다 보유 지역이니까 그 내용을 담아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된 2 가지 것(고창 농악, 고창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 - 그 중 선운사)과 관련된 장소에 다 같이 답사도 다녀왔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주안점 또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취지와 목적]

제가 이번에 만난 열아홉 분은 여기 고창으로 모두 귀촌한 시니어분들이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의 친구, 이웃사촌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노래와 합주를 통해 제2의 고창이 된 고창에 애정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대하면서요. 아무래도 고창의 자랑(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재로 가사를 만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합주라는 협력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고 의지하는 마음이 연결되어 닿기를 바랐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서 깨닫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회와 의미]

함께 한 시니어들을 보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매회 차 열정적으로 연습하시는 걸 보고 마음속 꽃이 보였어요. 이야기할 때도 얼굴 표정으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열아홉 송이 마음속 꽃들을 보며 제가 갖고 있던 시니어에 대한 편견을 반성했답니다. 이분들과 다른 어떤 것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훈자 해 보았습니다.

Q. 처음 계획할 때의 기대와 마무리하고 난 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과 결과]

5회차 안에 토론, 답사, 가사 만들기, 악기 연습, 합주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음악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어렵겠다 싶었어요. 대신 일상의 이벤트처럼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보자고 생각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악기 또한 다양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구성했죠. 멜로디언, 실로폰, 우쿠렐레도 있지만 애그 쉐이크, 윈드 차임벨, 카바사, 카훈 등 타악기 중심으로 악기의 역량을 심풀하게 맞춰서 연습했어요. 어렵고 복잡해지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요. 그런데 진행할수록 악기의 구성이나 난이도를 더 높게 해볼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모두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더라고요.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회차도 더 늘리고 싶고 악기의 구성도 음악의 난이도 더 높게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선 이 강사님 인터뷰♥

Q. 고창의 생태문화와 이번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생태문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태문화와의 관계성]

고창하면 손대지 않은(개발되지 않은) 자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생태적인 환경을 이번 프로그램에서 같이 생각해 본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함께 지은 가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 보존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Q.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관객성과 피드백]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2회차 때 선운사, 농악전수관으로 답사 다녀왔을 땐데요.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를 접하고 그 주제로 서로 이야기 나눴던 것이요. 관광명소이다 보니 저희뿐 아니라 학생들, 관광객들도 함께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과 공통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고 친해지는 모습을 볼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5회차 때 합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흰색, 빨간색으로 드레스코드도 맞쳤는데 여학교 이후로 이런 시간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예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재밌고 설레었다고 마지막이란 게 너무 아쉽단 말씀도 많이 해주셨답니다. 영상은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싶다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즐거워하셨답니다.

Q. 향후 고창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창 문화예술교육]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상해 봤는데요, <다시 음악시간> 이런 타이틀로 고정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시니어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본 계기가 되었답니다. 음악이라는 매개로 시니어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즐겁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른이 음악대’란 이름으로 시니어분들과 고창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고창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의 가사들은 책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 분들이야 말로 고창의 홍보대사로 제격이지 않을까요?

♥ 인터뷰어 : 육기(황지원) -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



2024 예술로 어울림

2024 예술로 어울림 - 홍보용 플래카드



2024 예술로 어울림 - 홍보용 엑스배너



홍보물 아카이브

2024 예술로 어울림 - 홍보용 포스터



2024 예술로 어울림 결과자료집

발 행 처 |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발 행 일 | 2024년 12월

발 행 인 | 심덕섭(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기획총괄 | 안종선(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기획진행 | 이준호(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한지혜(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사원)

이채하(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매니저)

디 자 인 | 드림공작소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문화관 2층

전 화 | 063) 561 - 1110

팩 스 | 063) 561 - 5556

홈페이지 | www.gctf.or.kr

본 제작물은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 예술로 어울림
전북 고창군 활동영상

전북 고창군
2024 예술로 어울침